

## 제65차 IAEA 정기총회 기조연설

용흥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IAEA 사무총장 및 각 회원국의 대표단 여러분,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정기 총회가 COVID-19의 대유행이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사무총장님의 훌륭한 지도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국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IAEA의 기술개발과 함께, IAEA가 핵심 이니셔티브로 추구하고 있는 동물원성 감염병 통합대응 프로젝트(ZODIAC 프로젝트)를 높게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한국 정부는 COVID-19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회원국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최근 2년

간 130만 달러 이상의 추가 지원을 해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방사선연구소 현대화 개선사업(ReNuAL+), Marie Curie 펠로우십 프로그램, NUTEC 플라스틱 등 IAEA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원자력안전은 원자력발전의 평화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확실한 전제조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계적인 전염병 속에서도 최고 수준의 원자력안전 보장을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는 고리 1

호기의 해체 승인 신청에 따라 안전한 해체를 위한 철저한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리 1호기의 해체가 첫 번째 해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IAEA의 안전요건을 토대로 규제지침을 개발하고 IAEA 및 회원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을 강화할 것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하고, 국민이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중대사고 등 사고관리 계획의 완성도와 이행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핵안보훈련시범센터(Nuclear Security Training and Demonstration Center)의 설치와 사이버 안보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IAEA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저장된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염수 방류 등 국경을 넘어 해양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가 주변국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시행해왔으며, 지난 8월 말에 도쿄전력에서는 결정에 따른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시 한 번 일본 정부가 이해당사국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않은 채 이러한 결정을 강행하고 있는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기로 한 결정을 재고할 것을 다시금 촉구합니다.

우리는 IAEA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투명성 및 안전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에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로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분석을 포함한 IAEA의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감시 및 검토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일본 정부는 책임감 있는 IAEA의 회원국으로서 이에 대해 성실하게 접근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의 요청을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위험을 해소하고 필요한 협력을 제공할 수 있는 IAEA의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북핵 문제는 외교와 대화를 통하여 긴박감을 가지고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8월 발표한 사무총장님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이 그러한 긴박한 느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남북대화의 조기 재개를 통해 비핵화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을 완성하는 데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하여 IAEA와 회원국,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원자력발전의 평화적 활용과 발전을 위하여 끝없이 헌신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COVID-19의

대유행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에 전례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안전한 환경과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무총장의 리더십 아래 모든 회원국들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한 팀'으로 모두의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길잡이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AIF**